

부산신도회 '시민대상' 제정

시민단체 연계 환경·사회운동 나서

만화포교모임 결성... 불교캐릭터 공모도

부산의 대표적인 재가불자 단체인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가 환경 및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개인·단체에 포상하는 '시민대상'을 제정. 불교의 대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중포교 활성화 등 새 천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계획을 확정해 그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불교신도회는 1월31일 코모도 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교화사업, 기획사업, 조직사업으로 나뉘어 2000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날 류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불교신도회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참신한 기획으로 적극적인 포교를 펼쳐도록 하자"고 말했다.

부산불교신도회의 이번 신년계획은 현재 가입된 80여 신도 및 신행단체의 힘을 모아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린이포교, 군포교 분야에 지원 등에 재가자들이 적극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두드러진 사업으로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시민 불교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 환경 및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시민대상'을 제정·시상하게 된다. 또 10월중 실시된 불교위상을 고양하고 불교계 제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포교활성화를 위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12월중에는 청소년 포교를 위한 겨울나기 자원봉사 활동도 벌인다.

기획사업부에서 돋보이는 것은 만화포교모임 결성과 불교캐릭터 및 사찰로고 공모전이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만화나 로고를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인들에게 친근하고 쉬운 불교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것. 또한 만화포교모임이나 로고 공모전 결과물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포교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지역 신행단체 사업계

획 공모를 통해 보다 참신하고 기획력있는 불교 만화가에 앞장서게 된다. 이로써 문제진단과 방향제시가 탁월한 신도, 신행단체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공모전을 통한 사업들이 곧바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

이밖에도 신도회 조직의 재정비를 위한 조직사업으로 회원정비작업, 교계 지도자 수련회와 환경공동체 대안 마련을 위한 부설 연구소 개설 등도 주력사업으로 확정했다.

변화와 진보의 격랑가운데 33주년이라는 오랜 연륜을 지닌 부산불교신도회가 연륜에 걸맞은 재가불교운동의 핵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을 사업 성과에 대해 교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수원을 연꽃피는 도시로

3월 첫 생명해방축제...세미나·전시회 등 행사

월드컵 문화상품도 개발

수원이 연꽃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수원시불교연합회는 아름다운 수원, 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1회 생명해방의 대중제를 준비하고 있다. 옛문헌에 수원은 연꽃 4대 서식지 중의 하나로 유명하다고 전해지는 만큼 수원을 역사적으로 복원하는 계기를 만들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기초작업이 주목적이다.

이번 축제는 3월 중순경 개최할 '연꽃의 생태와 역사 및 문화에 관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4월2일(예정)에는 만석공원 저수지에 연꽃을

심는 한편 연꽃그림 및 사진 전시회, 환경장터, 연꽃관련 전통음식 시연회, 문화공연 등도 열 계획 중이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수질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연꽃 및 환경친화 식물을 식재해 일반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2002년 월드컵 문화상품으로 개발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도 마련한다.

연합회는 경기불교회관, 대불청 경기지부, 서울농대교수불자회, 수원시약사·교사불자회, 경기도청·수원시청·수원교도소·수원구지소불자회, 수원포교당 거사회 등 불교계 단체들을 비롯 수원화경운동센터, 수원여성회, 수원

KYC, 수원경찰서, 월드컵범시민운동본부, 수원시청, 수원문화원, 경기문화복지재단 등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생명해방의 대중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협의 중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문민정사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 무등산 문민정사(주지 석장)는 녹색교통안전본부와 공동으로 '생활도로를 살립니다'란 주제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문민정사는 "생활도로의 주인은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는 손님"이라며 '생활도로를 살립니다'라고 쓰여있는 스티커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고 있다.

또 2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연중기도와 천주회를 봉행한다. (062)222-2202 주유적 광주지사장



동해시 찬불가 경연 동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형스님)가 주최하고 동해불교신도연합회가 주관한 제9회 찬불가 경연대회가 1월22일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심화사 주지 원형스님을 비롯한 사암연합회 소속 스님과 김인기 동해시장, 최원희 국회의원, 양승용 시의회의장, 최경순 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관장과 신도연합회 회원들 800여명이 참석했다.



지 초격, 여래원 주지 운원, 극락사 주지 남은 스님과 조남호 서초구청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서초·노원 사암련 신년법회

불우이웃에 1천만원 성금

서울 서초구 및 노원구사암연합회는 1월 25, 31일 각각 구민을 위한 신년기원법회를 거행했다.

서초구사암연합회(회장 해덕·일승종 총의회장)는 1월25일 서초구 민회관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관문사 부주지 춘공, 광명선원 주

년 대법회를 거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운덕스님은 법어에서 "경기가 다시 좋아졌다고 해서 IMF당시의 어려움을 잊으면 안된다"면서 "불자들이 앞장서 국가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노원구사암연합회(회장 도원·학림사주지)도 1월31일 노원구청(구청장 이기재) 강당에서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노원구민을 위한 신년기원법회를 거행하고, 관내 소년소녀 가장 및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2백여명에게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청룡사, 불교대학 헌관식

경남 창원시 청룡사(주지 응월)는 1월 25일 원효종 종정 법흥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극락보전목조삼존불을 봉안 및 창원 불교대학 헌관봉화를 봉행했다. 2백50여명 규모의 청룡사는 젊은 불자를 대상으로 한 도심 포교도량으로 역할할 전망이다.

정부 지리산 함양댐건설 추진

"실상사등 사찰환경 파괴"

교계·환경단체 반발

정부가 낙동강 하류의 갈수기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리산 함양댐 등 5~6개의 갈수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찰과 주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실상사와 함양불교사암연합회가 참여한 '지리산 함양댐 백지화 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서부경남에 2개의 대규모 갈수기조절용 식수댐을 건설하려 하는 것은 1500만명의 젖줄인 낙동강을 포기하지는 못하며, 지리산 일대의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지리산 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서울불교청년회도 1월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리산의 환경과 문화재의 훼손을 가져오는 댐

건설에 주력할 경우 환경단체와 연대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김영구 간사는 1월27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지리산 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댐이 건설될 경우 실상사 등 인근 사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확정안에는 갈수조절댐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반대하면 절대로 댐을 세우지 않겠다"며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꾸려 댐을 만듦을 놓고도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약사사 일대 동양의학 명소로

강서구, 허준기념관 2003년 완공

최근 MBC의 특별기획드라마 '허준'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여래불의 영험으로 유명한 서울 강서구 약사사 일대 동양의학의 명소로 육성된다.

서울 강서구는 최근 구입 허준선생이 <동의보감>을 집필한 강서구 탑산 및 개화산 약사사(주지 영배)

등 인근 문화유적지를 국제적인 동양의학 명소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서구는 탑산 일대에 허준기념관을 2003년까지 완공하는 등 2005년까지 '한강변 문화벨트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인드라망 공동체 수련회

실상사(주지 도법)는 1월 22~24일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의 회원들은 '21세기 새로운 문명대안과 불교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연기적 생명관으로 생명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문명대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대교종

대륜스님 부도 법륜사 봉안



대륜대중사 열반 2주기를 맞아 대륜문도회는 1월 24일 대종사의 생전 주석처였던 서울 법륜사에 대륜스님 부도를 새롭게 조성해 봉안했다. 부도는 사각형 하대석위에 기단부와 탑신부, 상륜부로 이루어져 탑신부는 동그런 석층형으로 만들었으며 높이 4m크기이다(사진). 이날 열반2주기를 기념 대륜스님 부도 봉안 법회에는 덕암종정스님, 해초 전 총무원장, 지성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백여명이 동참해 스님의 유덕을 기렸다.

진각종

청소년지도자 리더십 연수회

통리원(원장 성호)은 1월 18~21일 3박4일간 경주 보문 유수호 스텝에서 제1회 진각청소년지도자 리더십 연수회를 개최했다. 한국보이스카우트 경북연맹 15000진각스카우트가 주관한 이번 연수에는 자성학교, 학생회, 청년회에서 70여명이 야영법과 야영기술 습득, 건강과 안전 등 청소년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실제적이고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열반종

분원설치 위해 미국 답사

총무원장 김해근법사는 열반종 분원설치를 위한 현장답사차 14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리치몬드 시를 다녀왔다. 열반종은 올해말에 미국에 분원을 설치, 해외포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덕사 마정수기 법회

순천 장덕사(주지 청암·사진)는 19일 사찰창건 3주년과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랄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협정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운(운)이 약한자를 운이 강한자로 만들어 주고,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八相塔呪(팔상탑주)의 효험력!

12품 중에서 다음의 2가지 품목은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자신의 운세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시면 우선적으로 먼저 적용해 보십시오. 毎事(매사)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목걸이용 팔상탑주의 효험력"

사람의 운(운)과 운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또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도 운과 운세는 주기적으로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한다. 운기가 약할 때 사나 재난을 만나게 되면 크게 나고, 사기꾼들을 만나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어 재물도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 내리막 운세일 때 삼재가 들면 나쁜 영향을 더욱 많이 자주 받게 되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물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목걸이용 팔상탑주는 일년에 총팔상탑주의 축소판과 뒷면에 팔상탑다라를 새겨 넣어 생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도록 하였다. 이를 지니고 다니면 몸 전체에 계속적으로 생기가 충전되어 자신에게 미치는 재난,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계속적으로 번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계약이나 시험 보러갈 때 목에 지니고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삼재든 사람이 몸에 지니면 약해지는 운기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삼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초상집 등에 갈 때 팔이 몸에 지니고 가는 것이 좋다. -삼문을 전혀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여행이나 기타 오랫동안 외부로 돌아다닐 때도 팔이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했으면 한다. 사고를 당하지 않고 재물이 있는 곳은 자갈로 피해서 가게 되고 차량 사고나 비행기 사고에도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다.

관객이 있거나 소송건에 얽혀 있는 사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간접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꼭 지니고 다니면 된다.

자녀들에게도 가능하면 한 품씩 목에 지니고 다니도록 해주면 밖에 나가서 재난을 당하지 않게 되고 화업에도 열중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것은 분실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규격: 5cm×5cm
◆소재: 순도 99.9%의 순금으로 도금
◇가격: 70,000원

"대문용 팔상탑주의 효험력"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앞에 대문을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대문은 집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이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제압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막아주게 하고, 상스러운 기(氣)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놓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특히 앞집 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적살방이라 하여 기가 악한 집이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집안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집짐 여러를 일만 생긴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 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어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에 상스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을 제공한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운이 집안으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안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대문용 팔상탑주가 있으면 이사를 할 때 불행이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이사가는 집 때문에 본인의 이사가짐이 들어가기 전에 대문용 팔상탑주를 부착하고 나서 들어가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게 된다.

집안들이 먼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저승사자도 대문용 팔상탑주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꿈은 꿈 불자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규격: 8cm×8cm
◆소재: 순도 99.9%의 순금으로 도금
◇가격: 60,000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재물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총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도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입시킨 결과, 놀라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보급가: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 소재: 고급나무 조각 목민 필라믹
- 만다라: 특수금속면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45cm×45cm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막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집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들이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인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의 양이 완전히 차려지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만다라 팔자였었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이룸담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과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선물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팔이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34-9490, 334-9491

야간: (0342) 706-3060